

동티모르 유소년축구팀 템플스테이 체험

8월16일~17일 삼광사에서

‘동티모르의 기적’으로 불리는 동티모르 유소년축구단 31명이 부산 삼광사에서 머물며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 삼광사 ‘힐링광장’ (대표 무원)의 첫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8월 17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3 경주 국제 유소년(U-12)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을 초청했다.

축구팀은 8월 16일~17일 양일간 삼광사에서 머물며 우승기원을 위한 53존불대탑 탑돌이, 삼광사와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 간 자매결연, 후원물품 전달과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1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개최된 환영식에서 주지 무원 스님은 다문화 합장주를 선수들의 손목에 끼워주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만큼, 항상 끈기 있게 노력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기를 바라며, 경주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도 꼭 우승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동티모르의 신화를 만든 김신환 감독은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무원 스님에게 선수들 모두가 마음 깊이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다”며 “10년 전부터 축구팀과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고, 오늘 삼광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

김신환 감독 외 선수 31명

한국문화체험하며 우승 기원

하는 시간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티모르 유소년축구단(감독 김신환)은 2003년 김신환 감독의 주도로 창단해 지난 2004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30회 리베



동티모르 유소년축구단 31명이 8월16일~17일 부산 삼광사에서 머물며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리노컵 국제소년 축구대회’에서 건국 이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전장의 상흔과 빈곤에 허덕이는 동티모르 국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 사건이었으며, 역경을 딛고 성취한 기적같은 성과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22일 ‘2013 경주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동티모르 유소년축구팀이 스포르팅 유소년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박경수 지사장

한반도평화기원 ‘금어연’ 고불식

8월 20일 범어사 대웅전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는 8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한반도평화대회의 상징물인 ‘금어연’ 고불식 행사를 개최했다.

수불 스님은 고불문에서 “한반도 평화기원이 일만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상징물로서 역사적 사료로 길이 남을 ‘금어연’을 제작했다”며

“제작을 위해 40여 명의 국내 최고 명장들이 혼신의 힘을 바친 대작불사이며, 오는 9월 한반도평화대회에서 ‘금어연’의 행진에 합의된 지구촌 평화와 구국구세의 서원이 후대에까지 전해지길 축원”한다고 고했다.

연제자를 맡은 명천 스님은 “우리의 혼과 열이 담긴 최고의 작품을 위해 전국의 박물관과 사재를 탐방하고, 각종 문헌과 명장들을 섭외

해서 금어연이 탄생하게 됐다”며 “여느 연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명장들의 정성과 혼이 배인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완성된 ‘금어연’의 제작기간은 2012년 6월에 시작 총 480일, 제작경비 3억원이 총당됐다. 연(簾)은 사찰에서 불상, 불명패, 위패, 가사 등을 이운할 때 사용한 가마 형태의 불교 의식구다.

한편, 범어사는 백중을 하루 앞둔 이날,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대종사를 모시고 2013년 하



범어사 ‘금어연’ 고불식

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용호복지관, 다문화가정 결혼식

민·관·기업 협동지원, 환경·재능기부 테마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하지 못한 채 생활하던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지원해주는 행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부산여성회관·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가 함께 지원하는 민·관·기업 협력의 다문화 복지사업이 진행됐다. 8월18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웨딩홀에서 저소득 다문화 가정 두 쌍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2011년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이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된 마을버스 운전사인 김성찬(가명)씨는 “과거의 빛과 어린 두 딸까지 생겨 결혼식은 정말 꿈만 같았다”며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김 씨는 아내를 위한 사랑의 편지를 통해 “좀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결혼식으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오늘 난 너무 기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분신이며 생명입니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해 하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은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이들의 결혼식 사연을 듣고 해운대 한화리조트 박봉주 본부장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이 각각 주례를 맡고, 양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조은씨가 축가를, KBS 개그맨 한태양 씨 등이 재능기부로 결혼식의 즐거움을 더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결혼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051)628-6737 박경수 부산지사장



용호복지관 다문화가정 결혼식 장면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장마 끝나면 바로 비 피해 점검

여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산사에 사는 스님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올 여름에는 비 피해 없었나요?”

올 여름은 장마로 시작해서 무더위로 끝이 나는 분위기이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끝이 없을 것처럼 지속되던 장마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공세를 하고 있다. 그 덕분인가? 더위여 견디기는 힘들어도 물난리를 겪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실상 산사에서는 더위보다 단시간에 쏟아지는 폭우가 힘들고 무서운 존재이다. 산지에 지어진 사찰들이 대부분 경사지를 절취하여 평지로 만든 땅에 자리를 잡고 있어 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산사

라고 해도 오래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어지간한 비가 온다 해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길을 제대로 만들어주어 사찰내부로 빗물이 들어닥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어진지 1300년 가까이 되는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을 보면, 석단 밖으로 석루조가 볼록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대웅전 마당의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시설이다. 불국사에서는 무설전 옆에 있던 우물에서 넘친 물이나 비가 오면 마당으로 흘러들어난 물을 아무 피해 없이 외부로 처리하기 위해 마당하부에까지 배수장치를 하였던 것이다.

불자들이 많고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되면서 오래된 산사에서도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주변의 산을 무리하게 절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지형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토양의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구조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배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더 커지게 되어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큰 피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소소한 피해는 얼마든지 있다. 비만 오면 마당으로 물이 밀려들어와서 표토를 쓸어가 마당이 황폐화된다는지, 기단이 낮은 건물의 경우 기둥이 물에 잠겨 건물의 수명을 단축한다는지, 마당에 물이 차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환경이 습해진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는 다행히 비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당장 사찰내외부의 배수체계를 점검하여 내년도에 비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일 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조금만 비가 와도 마당으로 물이 밀려들어오는 경우는 배수시설점검이 절대 필요하다. 경기도 사사찰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